

여수시 4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지속가능한 관광 총력 여수 관광 제2도약 위해 국제 섬 박람회도 본격 추진

여수시가 4년 연속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국가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가 국내 산업·도시·농·식품·문화를 대표하는 부문별 최고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순위가 정해진다.

여수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12일간 전국 16세 이상 1만 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6.54점을 얻어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1위에 올랐다. 사천·안산·거제·목포시가 뒤를 이었다.

이에 발맞춰 여수시가 보유한 아름다운 섬을 주제로 한 국제 박람회도 본격 추진된다.

'여수 국제 섬박람회'는 민선 7기 권오봉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화태~백야 등 여수가 보유한 아름다운 섬을 잇는 연도교가 완공되는 시점인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2026년 '여수 국제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여수 관광의 제2도약과 함께 아름다운 천연 섬 자원의 보존·개발·조화를 통한 미래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 유치와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여수시는 올해를 지속가능 관광의 원년으로 삼고 행정력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웅천-소호 간 도로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객 불편 해소와 세계 섬 박람회 유치기반 조성, 섬과 연안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시립박물관 건립 본격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천연의 풍광을 갖춘 여수만의 해안선 정비사업과 관광 콘텐츠 개발 등으로 더욱 아름답고 깨끗한 여수 바다를 시민·관광객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만성리 등 해수욕장(5곳)과 공원화장실(9곳) 리모델링, 소호동동다리·오동도 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 보수, 돌산 백초-거북선 대교 진출입로 개설 등 관광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관광객 만족도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또 균형관광개발과 미래관광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여수시 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본격 추진 중이다.



여수시가 4년 연속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 후 권오봉 여수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이와 함께 미래에셋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 건설,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등을 통해 원도심 중심의 관광 인프라를 도시 전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여천 도심 인근 종합휴양시설인 안심산 유원지(14만4789㎡ 약 4만3799평)에 개장할 국내 최초 '공공 루지 테마 파크'는 관광분산과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를 모두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성공적인 축제 운영으로 국내대표 해양관광도시 위상도 높일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열린 여수 축제가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와 지역문화 연구원의 공

동 평가 결과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시민·관광객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시민과 관광객 모두 행복한 '상생 관광', 정직한 서비스로 믿음을 주는 '신뢰 관광',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 관광'을 이루겠다"며 "4년 연속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한 여수의 관광정책이 그동안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선 7기 관광정책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시민 불편도 해소되는 시민·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태풍·지진 등 피해 걱정 덜어드려요

여수시, 시민 풍수해보험료 34~92% 지원

여수시는 태풍, 호우, 지진, 강풍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호우, 지진 등으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로 총 보험료의 34%부터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보험료는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피해 보상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반가입자는 연 1만~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900원~7200원 수준이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 소유자이며 세입자도 동산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이 1년 동안 소멸성 보험인 점은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자동으

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새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새로 개선된 풍수해보험 제도로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 손해배상과 제3자가 저소득층의 개인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민간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진과 태풍 등으로 피해를 겪은 이재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풍수해와 지진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GS칼텍스·노조 14년째 지역 청소년 사랑



GS칼텍스와 GS칼텍스노동조합이 여수교육지원청에서 '2019년 방과후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여수 구봉중, 여수중, 여천중, 여남중, 여남고 등에 급식비 지원금 4600만원을 전달했다.

급식비 4600만원 전달

GS칼텍스(대표이사 사장 허세홍)와 GS칼텍스노동조합이 한뜻으로 모은 나눔 에너지가 14년째 여수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GS칼텍스 노·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수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방과후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 46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여수교육지원청 김용대 교육장과 구봉중, 여수중, 여천중, 여남중·고 등 4개 학교 교장, GS칼텍스 김재오 노조위원장, 김영환 지역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지원금은 GS칼텍스 노조원들이 성과급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사회공헌에 회사가 동원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를 통해 마련됐다.

GS칼텍스 노사는 방과 후 맞춤형 학습교실 외에도 2006년부터 여수시 중·고교생 교복 나눔, 여수YMCA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여건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14년간 지원한 금액은 9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김재오 노조위원장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모은 좋은 뜻이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청년 아이디어 시정에 반영 벤치마킹 투어 참가자 모집

여수시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청년 벤치마킹 투어' 참가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60명이고 참여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인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면 된다.

참여방법은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구성해 자기개발 분야, 정책발굴 분야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참가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체험비, 입장료 등 국내 벤치마킹에 직접 관련된 활동비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심사해 최우수 사례는 15만원, 우수 사례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서를 작성해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청년정책팀 이메일(hiho54@korea.kr)로 보내면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다문화가족 등 300여명 한영대학 송끄란 축제 즐겼다

여수한영대학이 송끄란 축제를 개최했다.

여수 한영대에 따르면 태국의 대표 새해 맞이 축제인 '송끄란 축제'를 지난 14일 학교 대강당에서 성황리 개최했다. <사진>

이날 축제에는 임정섭 한영대 총장과 최병오 한영대 여수사업장, 한영대 여수이주민센터장 등 관계자와 광주·전남 태국·베트남·캄보디아 이주여성과 가족,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축제는 여수 우도 풍물굿 보존회 사물놀이 시작으로 국가별 미인선발 대회, 한영대학교 평생교육원 무용 동아리의 축하 공연 순으로 이어졌다.

이후 태국전통 음식을 나누고 참가자들이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춤과 노래 등 자기자랑과 특히 송끄란 축제의 백미인 '물 뿌리기'를 통해 참가자들은 행운과 장수를 기원하며 마무리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 한영대·한화 여수사업장·여수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문수종합복지관·여수시노인복지관·은현교회·석천사·흥국사 등 지역 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에 대거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다.

임정섭 여수한영대학교 총장은 "이번 송끄란 축제를 계기로 다문화 가족들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

축제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임직원들과 함께 이주민들의 인권신장과 지역 사회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끄란 축제는 태국의 설날 열리는 축제로 매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 까지 가족이 함께 모여 신년을 축하하는 대표적인 행사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연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분양지역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